

SK케미칼, 호프데이로 임직원 “소통” 강화

SK케미칼(대표 김창근)이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.



SK케미칼은 7월12일 본사 에코랩 옥상 정원에서 경영지원부문 임직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<스카이 호프데이>를 개최했다.

임직원들은 SK케미칼의 경영전략과 기업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고, 일부 직원들은 개인적인 일을 서로 상의하기도 했다.

박찬중 경영지원 부문장은 7월13일 “직원들과의 소통은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구축할 뿐 아니라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”이라며 “직원들과의 소통이 원

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2/07/13>